

소형 어선 조난신호기 장착을

대당 100여만원...전남 3만5,693척 중 506척 불과

해난 사고 예방위해 설치 의무화 시급

서남해안에 잦은 선박 사고의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소형 어선들도 '비상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PIRB·이하 조난신호기·사진)를 장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있기 때문이다.

장마철을 전후한 6~7월에 '짙은 안개'(濃霧) 등으로 해양 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영세 어민들이 조난신호기 없이 출어, 돌발사고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선박안전법령' 등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계당 100여만원 대인 조난신호기 구입을 꺼리고 있다.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해양 선박사고는 ▲2004년 218건 ▲2005년 177건 ▲2006년 204건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월별로는 농무가 끼고 장마철인 6~7월 사고가 175건(2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선박사고는 ▲2001년 614건 ▲2002년 652건 ▲2003년 728건 ▲2004년 784건 ▲2005년 79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한국전과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등록 선박 3만5천693척(전국 39%) 중 조난신호기가 있는 배는 전체의 1.4%인 506척에 불과하다. 조난신호기가 없는 대부분의 선박은 '5t 미만'의 소형이며, 10척 중 4척은 선령(船齡) 20년을 넘긴 노후 선박으로 작은 충돌에도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목포 해경 관계자는 "조난신호기가 없었기 때문에 '경진호' 침몰 사실이 25시간 후에야 경찰에 알려졌다"며 "소형 선박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바꿔야 하며, 영세어민들을 위해 구입비 일부를 정부 등에서 보조해주는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영광군 나월면 안마도 북서쪽 17km 해상에서 전복됐던 목포선적 9.7t급 어선 '제3경진호'의 경우 선원들은 27시간 동안 표류하다 구조됐다. 사고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조난신호기가 없어 해경 등이 사고 여부와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있

'선박안전법령' 상 조난신호기 의무 장착 선박은 ▲국제항해 여객선 ▲국제항해 화물선 300t 이상 ▲근해

▲비상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 선박에 부착돼 있다가 침몰하면 수신 4m 이하에서 부력에 의해 자동으로 물 위로 떠오른다. 고유의 주파수를 50초마다 발사, 사고 위치를 알려줘 위성을 통해 신호를 전달받은 위성조난통신소가 해경과 구조본부에 이를 전달해 초기 구조작업을 신속하게 펼칠 수 있게 해 준다.

어업 선박 길이 24m 이상 어선 ▲연해 이상 항해 선박 300t 이상 ▲여객선 총 톤수 10t 이상 ▲어선 및 여객선이 아닌 선박 총 톤수 20t 이상이고 10마일 이상 항해 선박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22일 남미 아르헨티나 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표류중이었던 부산 선적 920t급 어선 '제207인성호'의 선원 28명은 조난신호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은 대전 해양경찰청 위성조난통신소(LUT·Local User Terminal)가 침몰 지점을 찾아 곧바로 모두 구조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광주 상무지구에서 나붙은 각종 현수막. 광주시내 각 구청은 불법 광고물 등을 부착하거나 뿌린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사채·폰팅 등 불법현수막 업체 72곳 수사

경찰, 범 위반도 조사

광주 도심 경관을 해치는 사채·폰팅 등 불법 현수막을 내걸거나 음란 퇴폐성 명암·전단지 뿌린 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시내 각 구청은 최근 도심 곳곳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채·폰팅·성인 마사지·대리운전 업체 등 72곳을 '육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했

다고 19일 밝혔다.

구청 측이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들 업체 대부분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현수막에 게재,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별 수사 의뢰는 첨단지구 등 신흥개발지역이 많은 광산구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동구 16 ▲북구 11 ▲남구 8 ▲서구 3곳 등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육외광

데릴사위 열풍

재력이 60여명 신청서

1천억원대 갑부가 데릴사위 공개 모집에 나선 사실이 알려진 이후 데릴사위를 찾아달라는 재력가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중은산업 선우에 따르면 지난 7일 1천억원대 갑부 A씨의 데릴사위 공개 모집이 시작된 이후 10여 일 동안 60여 명의 재력가가 아들 같은 사위감을 찾아달라며 데릴사위 모집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산이 50억원대인 모 금융회사 지점장은 결혼 뒤 자녀의 성을 친정가(家) 성으로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1천억원대 갑부인 한 여성은 명문대 박사과정의 딸을 위해 전문직 종사자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자수성가형 300억원대 재산가는 재산관리 능력을 제 1조건으로 꼽았다.

업체는 데릴사위 공모 신청을 한 재력가들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공모 방법과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필뉴스

니원침 (7240) 김장두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장: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광주점: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업체 관계자들과 공짜 해외시찰

구례군청 공무원 3명 소환

구례군청 공무원들이 용역회사 지원을 받아 공짜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구례군청으로부터 토지계획 관련 발주 용역을 맡은 S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시찰을 다녀온 H(지방토목 5급)·Y(일반행정 6급)·P(토목 7급)씨 등 군청 공무원 3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H과장 등은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여비를 지원받아 지난 4월25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프랑스·독일·스위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에는 구례군 토지관리계획과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맡은 경기도 과천시 S사와 나주 S사 등 2개 용역업체 관계자 4명도 동행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지에서 향응을 받았는지 ▲여비 외 다른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그러나 "연구용역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업체 측이 먼저 동행을 제의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해 3월 구례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들 업체에 총사업비 8억8천만원 상당의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맡겼으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 3월 납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세자금 대출 못받아 신용불량 30대 자살

지난 18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생촌동 한 원룸에서 정모(35)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부인(4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최근 전셋집을 얻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7천만원의 빚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대출을 받지 못하자 이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年 266%' 고리 사채업자에 벌금형

광주지법, 3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종복 판사는 19일 법정한도를 3~4배 초과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이모(4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분 하는 경우 이자율이 월 5.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3~4배 초과한 월 13.4%~22.2%에 해당하는 고리(高利)를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물관리법' 외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매 특별법' 등 위반 여부도 조사,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각 업체별로 담당 형사를 배정했다.

한편 '육외광고물관리법상'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첩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도둑맞은 양수기 중고 판매점에...

상나팔

고철이라면 닥치는 대로 훔친 고향 선후배가 경찰에 달미.

○나주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나주시 금천면 고토리 영산강변 논둑에 설치된 김모(67)씨 소유의 농업용 양수기 1대(시가 10만원 상당)를 1t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이모(33·나주시 산포면)씨 등 2명을 검거.

○이씨 등은 광주·전남 농촌지역을 돌며 산소용접기와 절단기 등을 이용, 12차례에 걸쳐 철제물 수 십여 점을 훔친 뒤 고토리 및 중고 판매점에 팔았다고 처분해왔다는 것.

○이들은 "도난당한 양수기 모터를 중고 판매소에서 봤다"는 피해자 김씨의 신고로, 장물(贓物) 이모(48·나주시 이창동)씨와 함께 붙잡히자 범행을 자백했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단위:원)

내장일기준	할인금액	비고
5일전부터	1만원 할인	홈페이지 예약 잔여타임에 한함
3일전부터	2만원 할인	
1일전부터	3만원 할인	

● 홈페이지: <http://www.hpdynasty.co.kr>